

  <b>제주특별자치도</b>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21. 8. 5.(목) <b>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	
<b>농업기술원</b>	<b>보 도 자 료</b> PRESS RELEASE	감귤아열대연구과장	김창윤 760-7260
		감귤육종연구팀장	강상훈 760-7261
		홍보담당자	고희열 760-7581
동영상(웹하드)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		후속자료 : 없음	

## 신품종 제주감귤, 유전자 분석 통해 100% 판별

- 도 농업기술원, 가을향 등 3개 품종 분석 완료...부정유통 차단 -

-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는 감귤 신품종 ‘가을향’, ‘달코미’, ‘설향’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100% 판별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.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황재종)은 감귤 신품종 3개\*에 대한 품종 판별 유전자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.

\* △11~12월 연내 출하용 만감류 ‘가을향’(2018년 품종보호출원) △12월 수확 가능한 고당도 만감류 ‘달코미’(2020년) △1월 수확 가능한 만감류 ‘설향’(2020년)
- 품종 판별 유전자 분석은 (주)바이오메딕에서 개발한 감귤 분자표지(마커)를 이용했다.

  - 앞서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 (주)바이오메딕과 분자표지 사용에 대한 통상실시 협약을 체결했다.
  - 분석방법은 감귤 잎에서 추출한 염색체 DNA에 대해 16개의 SSR 마커를 이용한 유전자 단편 분석을 통해 이뤄지며, 이를 통한 품종 판별 정확도는 100%이다.

\* SSR(Simple Sequence Repeat) 마커: 단순 반복 염기서열 분자 마커, 주로 동·식물 품종 판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.

- 강상훈 감귤육종연구팀장은 “유전자 분석으로 제주감귤 품종에 대한 판별이 확실하게 돼 부정 유통 차단에 도움이 된다”며 “우리 품종을 육성하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<참고자료>

## 우리 도 육성 감귤 신품종의 유전자 판별 결과

분석기간: 2021. 6. 12. ~ 7. 9.

분석회사: (주)바이오메딕 ※ 2020. 7. 23. 감귤분자표지 통상실시 협약 업체

분석대상: 가을향, 달코미, 설향, 11D089 각 5점

\*11D089는 교배계통으로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추가하였음

분석방법

○ (주)바이오메딕 식물 gDNA 추출 키트를 이용한 gDNA 추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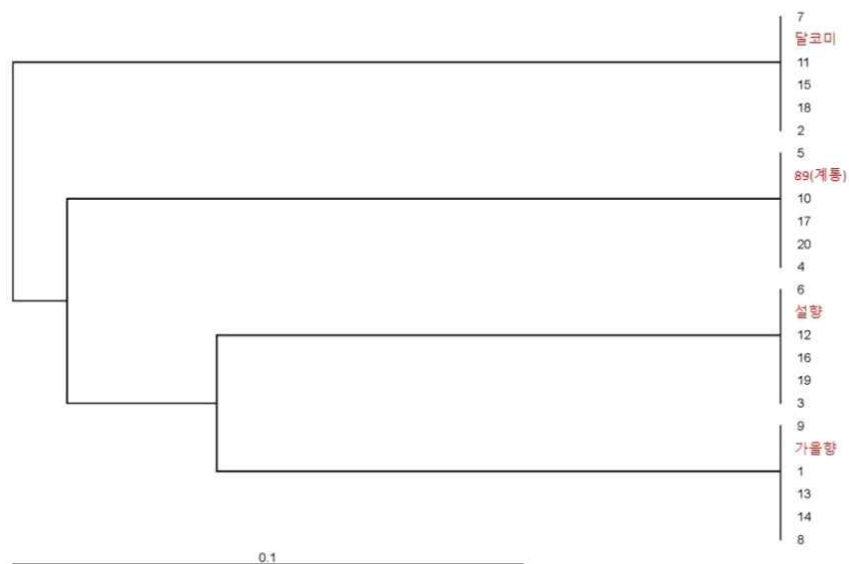
○ 분광광도계(DeNovix DS-11)를 이용한 gDNA 정량

○ 16개 감귤 SSR 마커(우 등, 2019)를 이용한 대립 유전자 크기 결정 및 계통도 작성

\*SSR (Simple Sequence Repeat) 마커: 단순 반복 염기서열 분자 마커, 주로 동식물에서 널리 사용, 품종 판별, 유전 연관지도 작성, 표지이용 선발, 유연관계 분석, 유전 다양성 연구 등에 활용

주요결과

○ 감귤 시료 20개에 대한 품종 판별이 정확히 일치하였음



<SSR 마커를 적용하여 작성된 계통도>

시사점

○ 육지부로 유출된 우리 품종 판별에 이용 가능

# 신품종 제주감귤, 유전자 분석으로 100% 판별

▲ 이은지 기자 | © 입력 2021.08.05 10:57 | © 수정 2021.08.05 18:44 | 댓글 0



| 도 농업기술원, 가을향 등 3개 품종 분석 완료...부정유통 차단



제주 감귤 신품종 가을향.

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황재중)은 감귤 신품종 3개에 대한 품종 판별 유전자 분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.

감귤 신품종은 △11~12월 연내 출하용 만감류 '가을향'(2018년 품종보호출원) △12월 수확 가능한 고당도 만감류 '달코미'(2020년) △1월 수확 가능한 만감류 '설향'(2020년)이다.

품종 판별 유전자 분석은 ㈜바이오메딕에서 개발한 감귤 분자표지(마커)를 이용했다.

앞서 농업기술원은 지난해 7월 ㈜바이오메딕과 분자표지 사용에 대한 통상실시 협약을 체결했고 품종 판별 정확도는 100%다.

강상훈 감귤육종연구팀장은 "유전자 분석으로 제주감귤 품종에 대한 판별이 확실하게 돼 부정 유통 차단에 도움이 된다"며 "우리 품종을 육성하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 이은지 기자